

아이린 '갑질' 이어 찬열 '사생활 폭로'…연예계 조마조마

스타일리스트 B씨 폭로에 아이린 사과
엑소 찬열의 전 여친이라 주장한 A씨
"날 만난 3년, 10명 넘는 딴여자 만나"
또다른 폭로 나올까 소속사들 긴장감

일부 연예인의 '갑질' 논란에 이어 사생활 의혹까지, 연예계가 잇단 '폭로성 주장'으로 시끄럽다. 혹시라도 또 다른 내용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 관계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아이돌 그룹 엑소의 멤버 찬열의 사생활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다. 2017년부터 찬열과 교제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가 올린 글이었다. A씨는 찬열을 향해 "나와 만나던 3년이란 시간 안에 넌 늘 새로운 여자들과 놀기 바빴다"면서 "그 안엔 걸그룹, 유튜버, BJ, 댄서 등 내가 들은 것만 1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가 사람이면 적어도 내 지인들은 건들지 말았어야지"라며 찬열과 주고받았던 관련 내용까지 녹음해놨다고 덧붙였다. 또 찬열과 케이크를 사이에 두고 함께 찍은 사진을 '증거'라며 공개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현재 해당 글과 사진은 삭제된 상태다.

이는 찬열의 '스타 파워'와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는 이슈와 맞물려 또 다른 곳으로 '불똥'이 튀게 했다. 각종 SNS와 온라인 사이트에는 찬열과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의 얼굴을 합성해 조작한 사진이 다시 입길에 올랐기 때문이다. 해당 사진은 2년 전 해외 누리꾼이 합성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번 논란과 의혹에 대해 찬열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다.

앞서 한 에디터 출신 스타일리스트가 걸그룹 레드벨벳의 아이린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스타일리스트 B씨는 SNS를 통해 "'을'의 위치에서 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밟히고 당하는 경험을 했다"면서 아이린에게 당한 '갑질' 피해를 폭로했다. 이후 소속사와 아이린이 공식적으로 사과해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아이린은 이번 구설로 인해 예정된 팬미팅을 취소하며 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29일 한 연예관계자는 "연예인 특히 아이돌은 사소한 논란으로도 팬덤에 균열이 생기고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까지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만큼 이들의 사생활이나 인성 등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다"면서 "팬들의 관심이나 사랑을 받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1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3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www.sportsdonga.com

토종의 자존심 최형우 "타격왕은 뺏길 수 없다"

〈KIA〉

투타 기록 1위엔 외인 일색이지만
28일 현재 타율 0.353 당당히 1위
역대급 페이스인 로하스까지 제쳐
"4년만의 타격왕 재탈환 욕심난다"

"이제 욕심 내보려 합니다."

KIA 타이거즈 간판타자 최형우(37)가 솔직하게 속내를 드러냈다. 개인기록에 대해선 늘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이지만, 올 시즌 막판에 마주한 이 '기회'만큼은 결코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의지다.

최형우가 2020시즌 타격왕을 노린다. 28일까지 타율 0.353, 28홈런, 114타점, 92득점을 올렸다. 규정타석을 채운 타자들 중 타격 순위에선 가장 높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는 KT 위즈 외국인타자 멜 로하스 주니어(30), 롯데 자이언츠 손아섭(32)보다 높은 타율이다. 로하스는 0.350, 손아섭은 0.349다.

28일 광주 KT전에서 3안타를 몰아치며 타격 1위로 올라선 최형우는 타이틀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사실 최근까지도 타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마지막 5경기가 남을 때까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잔여경기가 5경기도 되지 않는다. 욕심을 내보고 싶다"고 말했다.

최형우는 2016년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타격왕에 도전한다. 정확성을 요구하는 콘택트 능력만큼이나 올해 그의 타율을 끌어올려준 원동력은 한방(홈런)이다. 30홈런 고지도 코앞에 있다. 이른바 '에이징 커브'를 무색하게 만드는 활약상이다.

최형우는 "홈런은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미친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정말 모르겠다. (타격폼 등에) 크게 변화를 준 것도 없어 더 놀랍다. 그냥 '운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형우의 '역대급' 시즌은 데뷔 첫 프리에이전트(FA) 자격 획득을 앞둔 2016년이었다. 그해 최형우는 타율 0.376(1위), 31홈런(7위), 144타점(1위), 99득점(11위)이라는 괴물 같은 성적으로 시즌 후 'FA 100억 원 잭팟'을 터트렸다. 항상 스스로도 최고의 시즌이라고 자부하는 때다.

그때와 올해를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비슷한 느낌이다. 타구가 외야 중앙과 좌중간으로 (밀어서) 많이 나온다"는 답이 돌아왔다. 30홈런 재도전에 대해선 "28개까지 치니 이제 30홈런이 보인다. 여기까지 왔으니 한 번 노려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형우는 커리어 내내 소위 '영양가'란 측면에선 단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던 타자다. 큰 것 한방만을 노리기보다는 늘 타점을 뽑아 팀 승리에 기여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30홈런이라는 의미 있는 숫자도 현재는 1순위 목표가 아니다. 그는 "30홈런과 타격왕 중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타격왕을 뽑겠다. 그건 1등 아닌가"라며 올 시즌 최종 목표를 선명하게 털어놓았다.

경쟁자들보다 1경기 더 남아있는 데다, 가장 마지막 경기다. 3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릴 NC 다이노스전은 최형우의 타격왕 등극무대가 될 수도 있다.

▶ 프로야구 관련기사 2·3면

광주 |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KIA 최형우는 4년 만에 다시 타격왕에 등극할 수 있을까. 37세의 나이가 무색한 '역대급' 성적을 또 내고 있는 최형우가 홈런보다는 타율을 겨냥해 화려한 시즌 피날레를 다짐하고 있다. 경쟁자들보다 1경기를 더 남겨두고 있어 유리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뉴시스

코로나 확진자 932회 34억 1등 당첨! 1등 당첨 비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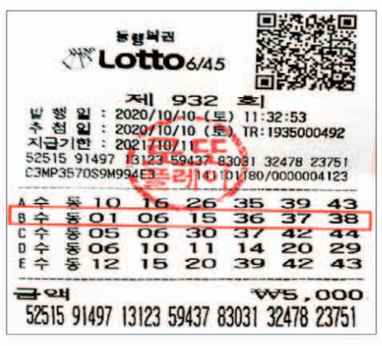
로또플레이가 또 다시 해냈습니다! (281번째 1등) 가입문의 1668-1645


로또플레이 오정식 대표

932회 로또 1등에 당첨된 한 30대 남성의 사연이 로또플레이 게시판에 올라와 화제다. 지난 10월 10일 추첨한 932회 추첨방송에서 34억 로또 1등 당첨금의 주인공은 총 7명, 이 중 1등의 행운을 안게 된 용인에 사는 문씨(남성/38세)가 화제의 주인공이다.

문씨는 현재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난 9월 16일 코로나 확정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10월10일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원하는 날 로또 분석 전문기업 '로또플레이'를 통해 입원 기간 중 부여받은 예상번호로 로또 복권을 구입했다. 로또 932회 추첨일인 10월10일,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로또 추첨 방송을 보던 중 심장이 멎을 뻔 했다는 문씨. 자신이 구입한 로또복권의 두 번째 줄에 있는 6개의 번호가 모두 맞았던 것이다. 어안이 벙벙해진 그는 여러 차례 확인을 했고, 분명 1등이 틀림없음을 확인했다. 33억 9천 만 원의 1등 당첨금을 수령하게 된 문씨는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는데, 완치가 되어 퇴원하는 날 코로나가 이런 큰 선물을 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며 말했다.

한편 문씨에게 로또 1등 당첨의 기쁨을 준 로또 예상번호 사이트가 로또플레이로 알려지면서 사이트 역시 화제가 되고 있다. 12년의 로또 분석 노하우 및 자체 개발한 예측시스템(통계기반)을 통해 꾸준히 로또 1등을 배출, '인터넷 로또 명당'이라고 불리는 로또 분석 전문 기업 '로또플레이 '(가입문의:1668-1645)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정 씨(47세/여성) 역시 골드회원으로 가입한지 5일 만에 로또 1등(12억 6천만 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며 큰 화제가 되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로또플레이 당첨 후기 게시판에는 김 씨(50대/여성) 40억 로또 1등에 당첨된 것뿐만 아니라 2등과 3등이 동시에 당첨된 인증 사진과 후기를 전하며 '로또플레이'의 신뢰성과 분석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로또플레이'는 요행을 넘어 정확한 통계와 확실한 당첨 사례들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또정보 업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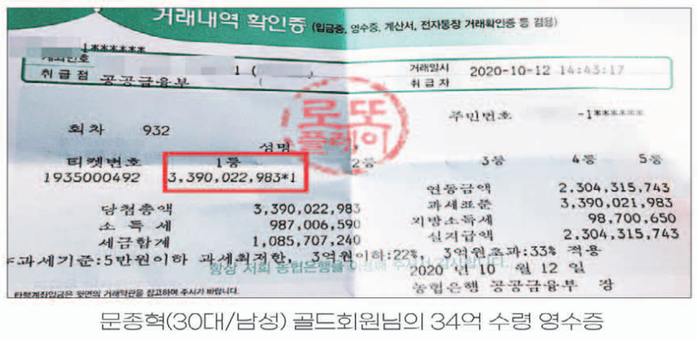


로또 932회 1등복권 (34억)

로또플레이는 한국 브랜드 고객 만족 지수 1위, 한국 소비자 만족 지수 1위, 한국 소비자 선호도 1위 외 총 18개 부문 대상 수상을 하였고, 실제 1등 당첨자를 배출하면서 지금까지 1등 281회, 2등 1,450회, 3등 4만149회 조합을 배출해내고 있다. 실제 1등 당첨 복권과 당첨금 수령 영수증까지 공개하고 있어 신빙성까지 더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1등, 2등, 3등 당첨 후기들은 로또플레이(lottoplay.co.kr)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다. '로또플레이'는 12년의 분석 노하우와 자체 개발한 1등 분석 시스템(통계기반)을 통해 분석 번호를 매주 핸드폰 문자로 전송해 준다. (20게임/수량 변경 가능) 로또플레이 골드회원 가입 비용은 6개월 62,000원, 1년 88,000원, 3년 158,000원으로 대표번호 1668-1645 전화 한 통으로 가입이 간편하다. (카드 무이자 6개월 할부 가능)

홈페이지 : LOTTOPLAY.CO.KR / 가입문의 : 1668-1645

당첨보장제 출시! 가입기간 3년 동안 3등 안되면 가입비 전액 환불!



문종혁(30대/남성) 골드회원님의 34억 수령 영수증